

로컬라이프

익산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익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행사에 적극 나섰다.

2일 익산시청 권한대행 한용재 부시장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한 국·소·단별로 직원들과 함께 북부시장을 비롯한 6개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비롯한 공무원들은 대형마트보다 최대 20% 저렴한 전통시장 흥보를 진행했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장을 보며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한편 익산시는 매년 전 공무원이 맞춤형 복지제도(1인 5만원)를 이용해 9,065여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고, 매월 2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소방서 화재취약전통시장 '보이는 소화기' 설치 행사

군산소방서(서장 박진선)는 2일 역전 종합전통시장(구시장)에서 설 명절 장보기 및 화재취약 전통시장 '보이는 소화기' 설치 제막식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장상인, 시민, 의용소방대, 군산소방서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보이는 소화기' 설치 화재취약 대상인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기존 바닥에 위치해 있던 소화기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누구든지 쉽고 빠르게 사용하여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목적의 국민행복안전 정책 사업이다.

군산소방서장(박진선)은 '화재 초기 눈높이 소화기' 사용으로 화재 골든타임 확보하여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설 연휴 민원 상황실 운영

군산시는 설 명절 연휴기간인 2월 7일부터 9일까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은 7개 분야(도로, 교통, 청소, 수도, 하수, 보건, 환경위생) 100여명으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도로 파손, 쓰레기 불법투기, 상하수도 긴급보수, 불법주정차 차량 지도 등 각종 생활민원을 처리한다.

또 연휴기간 동안 운영되는 병의원, 약국, 보건진료소, 음식점 등 생활정보를 안내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은파관광호텔 건립 재개 청신호

새롭게 인수한 김제관광개발, 건물 증축 사업계획승인 군산시에 신청

군산시 은파유원지내 은파관광호텔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공사의 부도로 중단된 은파관광호텔 건립이 사업을 새롭게 인수한 김제관광개발(주)에서 기존 건물 증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지난달 2일 군산시에 신청했다.

현재 시는 사업계획에 대해 검토 중으로 이 절차 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호텔은 2002년 9월 은파관광개발에서 현재 부지(3만㎡)에 지하 1층·지상 16층 규모로 건립하던 중 2007년 부도로 지상 1층 건축물 골조만 들어선 채 공사가 중단돼 그동안 군산의 관광명소에서 주변미관을 해치는 대표 흉물로 전락했다.

하지만 지난달 새 주인을 만나고 이에 따른 공사에 청신호가 켜졌다.

은파관광호텔의 경우 준공기간을 지키지 못해 지난해 3월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됐지만, 시의 건축허가 승인은 유효한 상태였다.

최근 김제관광개발(주)은 공사비를 둘러싼 유채권자와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건물 구조안전진단에서도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새 사업계획만 승인되면 곧바로 호텔 증축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획대로라면 이곳은 지하 1층, 지상 16층의 객실 120개를 갖춘 호텔이



를 둘러싸고, 호텔 영업은 2018년 상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회사측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은파호수공원내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중인 은파관광호텔은 그 규모가 대지면적 3만822㎡, 건축면적 3995㎡, 연면적 2만5246.68㎡에 달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해경, 설 명절 해상범죄 강력 단속

3개 전담반 구성 수산물 절도·음주운항·폐기물 투기 등

해경이 설 명절을 앞두고 강력한 형사활동에 돌입했다.

2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설 명절을 맞아 각종 해상범죄 발생 우려가 크다고 보고 오는 12일 까지 강력한 형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3개 전담반을 구성해 우범선박의 출입항이 예상되는 항포구와 수산물 운반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구역별 전담 형사들을 배치한다.

또 양식장 주변 등 취약해역에 형사 기동정과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하는

등 해상치안활동을 전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마을어장 양식 수산물과 선박 선용품 절도 등 생계 침해형 민생범죄 사범 ▲음주운항·과적 등 해상안전저해사범 ▲자원고갈형·분쟁유발형 불법조업 행위 ▲선상폭행, 감금 등 해상종사자 인권유린사범 ▲폐기물 해양투기 등 고의 해양환경 저해사범 등이다.

특히, 명절기간 동안 고향을 찾지 못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일부 선원들이 상호 폭력을 행사하거나 음

주 후 선박을 불법으로 운항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활동에 나선 방침이다.

장인식 서장은 "들른 명절 분위기를 악용해 해상에서의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속기간 동안 항포구에 정박해 있는 선박을 유의 깊게 살피고 선주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선원들과 연락을 취해 선원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세관, 관세청 통합성과관리 전국 1위

군산세관(세관장 임성균)은 2015년 관세청 통합성과관리 종합평가 결과 전국세관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관세청이 지난 2006년에 처음 도입한 CFM(통합성과관리)은 조직과 개인의 모든 활동을 체계적으로 목표달성에 연결시켜 관세청 본청과 각 세관 등 56개 기관 257개 부서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군산세관은 이번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로 확대되는 FTA 무역환경에서 맞춤형 컨설팅으로 지역기업의 FTA 활용률을 전년 대비 20% 향상시키고, 휴대반입 농산물에 대한 상표사진신고제를 시행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성 향상에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세관 중 최우수세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으로 규제개혁 성과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청렴도, 내부고객만족

도 및 조사행정분야 평가에서도 투명한 업무처리로 최상위 평가를 받는 등 지난 한해 관세행정 여러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임성균 세관장은 2016년도 군산항을 통한 테러, 마약, 농산물 밀수 등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여행자가 반입하는 중국산 농산물의 식품허가증 징구, 상표사진신고제 확대 시행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설 앞두고 나눔의 손길 이어져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익산시에 이어지고 있다.

2일 오산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이혜란)는 오산면사무소에서 독거노인 483세대에 떡국 떡을 전달했다.

부녀회는 곡창지역으로 쌀이 풍부한 오산면의 특징을 살려 50여명의 회원들이 심시알만으로 쌀을 기부해 280kg 떡국 떡을 마련했다.

약400인 분량으로 어르신들이 몇 번씩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준비했다.

16년째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우성약국 강태욱 대표도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이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로 봉사 나눔을 목표로 2006년에 구성된 도우리봉사단(단장 김선교)은 2일 보건소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고 생선 40박스를 기탁했다.

김선교 단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탁을 하게 됐다. 함께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함라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상호)는 함라면사무소를 방문해 저소득층 30세대에 15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별치 1박스와 꽃김, 가래떡으로 구성된 후원물품은 저소득 세대들이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장왕원기자



전북서부보훈지청 호국영웅 홀 개관

전북서부보훈지청은 지난 1 오전 11시경 청사내 교육장에서 호국영웅 홀 개관식 행사를 개최했다.

개관식에는 호전북서부지역 6개시군보훈단체장(5명)과 호국영웅 백미고지 3용사 안영관하사의 유족(안덕걸)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 호국영웅 안영관하사의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와 기념품을 증정하였고, 호국영웅홀 현판을 제막했다.

국가보훈처에서 국경과제로 추진 중인 「호국영웅알리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날 개관한 호국영웅홀은 청사 1층에 전북서부지역 호국영웅(황금재, 강희중, 안영권, 차일혁, 조재미)5명의 사진 및 공적을 기록한 대형 게시판

과 6.25전쟁 참전국 및 피해현황판이 부착되어 있고, 이밖의 6.25전쟁 영웅 공적이 기록된 액자가 설치되어 있다.

2층에는 회의실을 호국영웅실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북서부지역 출신 호국영웅의 사진과 공적이 기록된 액자와 영광도 포격 등 액자가 설치되어 있어 향후 청소년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우실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은 "이번 호국영웅 홀 조성을 통하여 우선 6.25 전쟁 당시 신병을 바치신 우리지역 호국영웅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기억하고 되 새길수 있도록 찾아오는 지역주민들의 애국심 함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문제는 싱크대다**

**Why? "씨서라" 사용해야 하는가**

- 싱크대 배수통 40%오래 찼던때 외 막힘
- 스물~스물 올라오는 음식물과 불쾌한 냄새
-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속속 하고 싶다면
- 믿을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 (주) 코포스

##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http://www.seeseri.com/) [www.씨서리.com](http://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

**"씨서라" 실제 설치!**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